

새로운 문화의 코드 '동성애'

- 영화 <왕의 남자>를 통해서 본 문화속 동성애

이해일까? 아니면 도구일까? 그것도 아니면 변화일까?

최근 영화 소재로 '동성애'가 자주 등장하고 있고 이 작품들이 관객과 평단의 호응을 동시에 얻으며 흥행에도 성공하고 있다.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.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, 왜 이런 변화가 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.

✎ 김 신 혜 방송작가

왕의 남자

연극 '이'를 원작으로 한 영화 <왕의 남자>는 관객 1000만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지만 첫 신을 보았을 때만 해도 이 영화는 특급 스타도, 화려한 그래픽이나 막진감 넘치는 액션도 없는 코시 주목 받지 못하는 작품이었다. 시사를 마친 평론가와 기자들은 '괜찮긴 한데 흥행은 별로 일거라는 예측을 했었다. 그러나 <왕의 남자>는 예상을 뒤엎고 한국영화의 모든 흥행기록을 다시 세웠고 일본배치나 평론가들은 이 영화의 내막 요인을 뒤늦게 설명하느라 우왕좌왕 분주하다. 여기에 대한이준의 감독의 담은 간단하다. 워바당하고 소외당해온 비주류의 정신이 관객의 마음을 흔든 것뿐이라는 것.

<왕의 남자> 속에 녹아있는 비주류의 삶과 정신은 다양하다. 첫째는 천민 중의 천민으로 압신여김을 당했던 광대들의 한과 설움을 승화시킨 신명난 놀이판, 둘째는 기생에서 왕의 여자로 성공적인 입성을 이룬 듯 했으나 결국은 주류의 삶에 온전히 편승하지 못하고 탐욕의 굴레에 짓눌려 원점으로 돌아오는 장녹수, 셋째는 왕이 곧 법이요 국가였던 시대에 '왕'의 자리를 차지하고도 한 인간으로서의 상처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끝을 맞고 가는 연산군. 여기에 또 하나 공간, 장생, 연산의 운명적 인연과 '동성애' 까지... 이중 특히 '동성애' 코드는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데 한 몫 한 주요 요인 중 하나다.



과거에서 현재까지, 동성애를 다룬 영화들

<왕의 남자> 이전의 다른 작품들은 대부분 <왕의 남자>보다 '동성애'라는 소재를 전면에 내세워, 본질적이고 공격적인 화법으로 대중에게 접근했었다. <내일로 흐르는 강>, <모!모!부비>, <주홍 글씨>, <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>-(천호진과 남자 가사 도우미 김태현의 동성애,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다룬 <용서받지 못한 자> 모두 동성애 코드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.

하지만 <왕의 남자> 속의 동성애는 이전 영화속 동성애와 또 다른 코드로 존재한다. 동성애의 성 정체성을 논하기 보다 사람과 사람의 이해와 사랑, 연민 등의 감정과 운명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탄탄한 구성과 절제된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다. 때문에 관객들은 다른 작품에서 보았던 '동성

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보이
기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
은 인간 군상의 하나로 받아들일
수 있었을 것이다. 국내 개봉을 앞
둔 바둑 영화 <브로코맥 마운틴>
역시 운명적 사랑에 빠지는 남자
(카우보이) 동성애의 이야기를 소
재로 하고 있지만, 자극적이고 선
정적인 접근이 아닌 순수하고 진
실한 사랑과 인생에 대한 깊이 있
는 통찰이 돋보이는 수작이라는
평을 받으며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여러 부분을 석권했고
흥행성적도 성공적이다.

이런 바람을 타고 극장가에는 연이은 동성애소재의 영
화가 개봉될 예정이다. 남자 동성애자와 한 여성의 사랑을 다
룬 일본 영화 <베중 노히미코>, 딸기암 진단을 받은 동성애
자 사진작가의 삶을 다룬 프랑스 영화 <다임 부리브> 등이

97년, 간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임자웨이 감독의 '무에
노스아이레스'는 그 작품성에 대해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
고동성 간의 사랑을 그렸다는 이유로 공인윤리위원회의 기
부로 수입 자체가 보류됐다. 98년에야 도입부분 삭제하고
'해피투게더'로 제목을 바꾸고 시야 상영할 수 있었다.

심의 뿐 아니라 관객도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 '동
성애' 이야기는 주로 '안타' 문화권에서 벌어지는 성적소수
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시위처럼 다뤄져왔다. 1년째 지금
우리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영화계가 '동성애' 바람이 불
고 있다. 이런 문화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?

일단 '코펜성'에서 벗어나는 대부분의 것은 잘못된 것
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벽이
허물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또 다수와 소수, 주류와 비
주류의 편 가르기가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의
힘의점을 찾아가는 한 과정으로 보인다.

정신의학계에서도 더 이상은 동성애를 성적 정체성 장
애로 다루지 않는다. 학계의 인정과 정치적 허용, 문화 소재



의 다양성 측면에서 음지 속에,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'동성
애' 이야기가 양지로,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. 새
로운 문화 코드의 하나로 각광되고 있는 '동성애'는 이제
세상과 진정한 '소통'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.

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문화적 성숙의 단계로

고동, 일탈, 선정성 자극, 호기심 충족, 이질적이고 특
이한 위험한 소수 집단, 그동안 문화 속에서, 영화 속에서
그려졌던 '동성애'나 '동성애자'의 모습이다. 하지만, 이제
영화 속 '동성애'는 인간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
하나로 사랑의 한 형태로, '동성애자'는 그런 사랑에 빠진
한 인간으로 존재한다. 영화계가 부는 동성애 바람은 우리
사회가 동성애를 '있을 수 있는 삶의 패턴'으로 받아들이면
서 벌어지는 문화적 수용 현상의 단초라고 볼 수 있다. 이런
문화적 화두는 이제, 실제 우리의 삶과 제도 안에서도 동성
애를 어떻게 일마나 수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과 이해의 숙
제로 남게 됐다.

500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나라에서 한 편의 영화
를 1000만이 넘는 사람이 봤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. 이
런 영화의 열풍이 함께 불고 온 '동성애 신드롬'에 대해 우
리사회가, 나와 다르다는 것이 '차이'가 아닌 '차별'이 되어
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, '이해'와 '인정'이라는 해답
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.